

■ 실속 재테크

주가지수 연동예금

원금보장 강점... 고수익은 '글썸'

주가 폭락 땀 정기에금 금리보다 못해
조건 천차만별 꼼꼼히 따져 가입해야

은행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이 고금리 틈새 상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식이나 펀드 투자도 원금 손실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ELD는 최고 연 20% 안팎의 고금리에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은 보장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틈새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최고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투자해야 한다.

◇상품 출시 붐몰=ELD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해 말 연 6%대 후반의 고금리 특관예금을 판매했던 은행들이 1년 만기가 돌아오자 자금 여유를 위해 1주일에 3~4건의 ELD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1일 '하이-믹스 복합예금 31호'를 내놓고 오는 22일까지 1천억원을 한도로 판매에 들어갔다. 이 상품은 유가증권시장의 대표적 종목인 코스피 200지수와 연계해 최고 연 16.1%의 고수익을 제공한다.

광주은행도 지난 달 24일 '더블찬스 정기예금 44호'를 내놓고 오는 9일까지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도 최저 원금보장에서 최고 연 17%의 이자를 제공한다.

ELD는 특정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지급되는 금리가 결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일반 예금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데다 주가 상승에 따라 시중금리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1년 만기에 최저 100만원부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점도 인기를 끄는 원인이다. 광주은행이 올 하반기에 출시한 '더블찬스 40호~43호'는 상품별로 30억~70억원 안팎이 팔려 나갔다.

◇기대 수익률 낮춰야=하지만 은행들이 제시한 최고 수익을 얻으려면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은행의 '복합예금 31호'만 하더라도 1년 후 만기일인 내년 12월 23일의 코스피 200주가가 기준일(설정일)보다 30%이상 올라

■ 주가지수 연동예금

운용사	은행
상품형태	정기예금
자금운용	대출 및 채권·주가지수 옵션
원금보장여부	만기에 100% 지급 보장
수익결정방식	사전에 약정한 확정 수익 지급
상품의 다양성	적음
중도해지	가능

야 16.1%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반면 주가가 떨어지면 원금 수준(0.5%)의 이자밖에 받을 수 없다.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가입기간 중 한 번이라도 주가지수가 최고금리 달성 조건보다 더 높게 오르면 금리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중도에 해지하기도 쉽지 않다. 은행이 먼저 상품을 해지하지 않았는데(콜옵션을 행사) 고객이 중도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이자를 고스란히 은행에 내줘야 하고 중도 해지 수수료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ELD는 많은 장점이 있는 상품이지만 최고 수익률 달성 가능성이 낮고 환금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어 자금운용 계획과 주가를 전망후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FUBU 겨울패션쇼 1일 광주 상무지구 세정아울렛에서 열린 제일모직의 캐주얼 브랜드 FUBU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옷 맵시를 자랑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카드사들 현금서비스 금리 내린다

내년부터 1~3%P 인하

내년 초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가 회사별로 1~3%포인트 수준에서 인하된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5개 전업카드사와 15개 카드 겸영은행은 내년 1분기 중으로 현금서비스 금리를 0.4~3.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금리는 평균 26.5%(이하·연환산 기준) 수준으로 조달금리와 연체율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최근까지 회사별로 금리인하 방안을 제출받았다.

하나카드와 신한카드, 비씨카드는 연 4.0~4.5% 수준인 취급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이자에 녹이는 방식으로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나머지 카드사들은 취급수수료를 낮춰 전체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 기준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가 29.36%로 가장 높았던 부산은행이 3.80%포인트로 가장 많이 낮추기로 했고 23.28%로 가장 낮았던 기업은행은 0.40%포인트 인하 방안을 제시했다.

신설회사인 하나카드는 취급수수료를 아예 폐지해 평균 현금서비스 금리를 26.98%에서 23.56%로 3.

42%포인트나 낮추기로 했다. 비씨카드도 취급수수료를 전면 폐지해 금리를 24.29%에서 22.29%로 낮춘다.

신한카드는 24.91%에서 23.71%로 1.20%포인트, 삼성카드는 25.31%에서 24.11%로 1.20%포인트, 롯데카드는 27.30%에서 25.58%로 1.72%포인트, 현대카드는 27.45%에서 25.85%로 1.60%포인트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은행계를 보면 KB은행이 25.26%에서 23.69%로 1.57%포인트, 농협중앙회가 27.01%에서 25.20%로 1.81%포인트, 외환은행이 27.23%에서 25.23%로 2.00%포인트 각각 낮추기로 했다. /연합뉴스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 60일로 연장

소비자 집단분쟁사건의 조정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은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다. 대표자는 조정 신청의 철회, 화해 또는 조정안 수락 때

다른 신청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3~5명의 위원으로 소회의를 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할 때 위법행위가 사라지거나 위법사실의 판단이 어려우면 관계 행정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완화된다. /연합뉴스

광주 남구 금고, 光銀 재선정

광주은행이 2010년부터 3년간 더 광주시 남구 금고를 맡게 됐다.

광주시 남구는 1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광주은행이 2010~2012년 구 금고 담당 은행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김정일 사망설에 株價 한때 출렁

금감원, 악용세력 조사

'두바이 쇼크'에서 벗어난 국내 증시가 김정일 사망설로 한때 출렁거렸다.

1일 장중 1,560선을 회복한 코스피

지수는 오전 10시18분께부터 급락하기 시작해 10시32분 1,541.09로 14분 만에 20포인트가 내렸다.

당시 시장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설이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돌았다. 하지만 이후 사망설이

이전의 루머성 기사가 재탕돼 떠도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수는 1,550선을 회복한 뒤, 전날보다 14.12포인트(0.91%) 오른 1,569.72로 거래를 마쳤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설로 국내 주식시장이 장중 급락한 것에 대해 "사망설을 악용하거나 이용한 세력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www.kbh.com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부대역점 (062) 227-9970

수원점 (061) 752-9940
백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장수 바다장어

100% 자양식

www.kbh.com

062-227-9940

푸른산 레크리얼

특수 입주 및 분양을 위한 세심한 특별 설계

분양 / 임대:

- 170㎡ (47평) 분양 4500
- 330㎡ (100평) 임대
- 660㎡ (200평) 임대
- 1,300㎡ (400평) 임대
- 1,300㎡ (400평) 임대 전용 주차

수도권 최강 기업

- 분양가 50%가량 상승 지원 100% 지원
- (저지정해부 및 도.공.주택)

www.bluesanrecreal.com